

“5년간 정보보안에 1100억 투입… 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2026 카드사 생존전략

롯데카드

정보보호센터 대표이사 직속 격상 플랫폼 ‘디지털카’ 필두 고객 확보 3억 달러 ABS 발행 등 자금조달

롯데카드는 올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을 강화하고 본업 경쟁력 강화, 자산건전성 관리, 조달구조 다변화를 중심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새 수장 미정

롯데카드는 올해 신년사 없는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12월 조좌진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신입 대표이사 인선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직 차기 대표이



롯데카드 사옥.

/롯데카드

사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롯데카드는 당분간 조 대표의 경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점은 고객 신뢰 회복이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해 11월 CEO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존감 회복과 더불어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3일 “올해 다양한 사업 전략에 앞서 고객 신뢰 회복이 먼저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정보보호 체계 강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 간 정보 보안 분야에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보보호센터를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9월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 디지털카 전략·조달구조 다변화

롯데카드 수익성 제고 방향으로 ▲디지털카 전략 중심 고객 기반 확대 ▲조달구조 다변화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꼽았다. 실제 롯데카드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084억원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롯데카드는 핵심 플랫폼인 ‘디지털카’를 필두로 성장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앞서 조 대표는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카드·제휴사업·디지털카본부를 통합 관리하는 개인고객사업부를 신설하고, 디지털카본부 수장을 교체했다.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카는 롯데카드의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카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개편하고 2022년 디지털카 앱내 ‘모빌리티서비스’, ‘핑샵’ 등을 오픈하는 등 디지털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영을 강화해 왔다.

한편, 롯데카드는 자금 조달 구조 다변화 전략도 이어간다. 최근 롯데카드는 3억 달러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번 ABS 발행은 평균 만기 3년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및 금리 스와프 계약으로 체결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외 ABS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사무소 오픈… 시공사 총출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사무소 수내동 24번지 일대 6839가구 규모 2028년 이주, 2032년 입주 목표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 일대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선도지구인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에 재건축 사무실이 문을 열자 주요 건설사와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재건축 시장이 들쭉이는 모양새다. 양지마을을 시작으로 분당 내 선도지구 간 사업의 속도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재건축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가운데 공식 사무실을 연 첫 사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분당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양지마을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김은혜 의원은 비롯해 이재영 경기도의원, 서은경 성남시의원, 서희경 성남시



양지마을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양지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

의원, 이형식 성남시 비서관 등 지역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찾았다. 분당 재건축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물량 제한 등 제도적 변수에 영향을 받은 만큼 향후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이 관건이라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지마을 재건축은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분당 최대 정비사업이다.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공원·공공시설·보행자도로 등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학원가가 조성된 수내동 학단지 중심에 위치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연결돼 분당 내 재건축 선도지구 중 유일한 역세권으로 교육 환경과 교통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양지마을 재건축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데다, 올해 분당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면서 구역 지정 속도전이 불가피해졌다. 주민대표단은 초림초·분당고와 일부 도로를 제외해 면적을 축소 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27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8년 이주, 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추진 기대가 곧바로 거레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양지마을 인근공인중개사들은 특별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은 확산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고 전했다.

수내동의 C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은 재건축 이슈로 분위기 크게 달아오른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입지가 좋은 만큼 관망은 가격대의 매물 위주로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양지마을을 분당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행정이 등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양지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선정과 시행규정 마련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을 찾은 재건축 단지 주민은 “학세권·역세권 입지라 살기 좋지만 노후화와 누수로 생활 불편이 컸다”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 지원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연 6.9% ‘새희망 홀씨’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 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 프로그램’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하위 20% 수준의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신한은행에 보유중인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장기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환 이후 적용 금리는 연 6.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제공해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총 6만 5000여명(26년 1월말 기준) 규모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 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서민 대안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를 2026년 1분기 내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연체 이력 중심의 사후 평가에서 벗어나, 대안정보·비연체 기반의 선제적 신용평가 체계로 전환해 저신용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시적인 신용도 하락이나, 단기 연체 이력만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환능력과 과거 상환 이력 등의 성실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리부담 완화와 상환구조 개선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재기 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3년간 4조’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하나금융그룹이 코스닥·벤처·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직접금융 ▲간접금융 ▲제도적 지원 등이 골자다.

먼저 직접금융 분야에서는 하나증권을 통해 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채권 조달 수단을 다각화한다. 2028년까지 최

대 4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자본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간접금융은 6개 관계사가 공동 출자하는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매년 1000억 원씩 4년간 출자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총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별도로 하나증권은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 결성도 추진한다.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경영지원그룹 소속이던 ‘증권대행부’를 기업그룹으로 재배치했다.

이는 기업금융 전담 직원(RM)들이 현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산업팀을 운영해 코스닥 시장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3일 “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스닥·벤처·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